

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 선임대후매도 사업 통해 청년농부 지원 나서

[천정훈]

- 농지 최장 30년간 장기 임대 후 소유권 이전 기회도 가능
- 2차 신청자 모집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는 농지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13일까지 선임대후매도 사업 2차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선임대후매도 사업은 농지구입을 희망하지만 농지구입 자금이 부족하여 농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청년 농업인에게 최장 30년간 장기 임대하고, 원리금 상환이 마무리되면 소유권을 이전하여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의 청년 농업인 이다.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 대상 농지는 1000m² 이상의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과 밭·과수원, 농업진흥지역 밖인 경우에는 경지 정리, 받기반정비가 완료된 농지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과 지원 농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농지은행 포털 및 옥천영동지사(☎043-730-2512)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옥천=천정훈 기자